

## 굴곡진 '죽음의 도로' 직선으로 '땡~' 영·호남 거리도 마음도 가까워졌다

## 김동철, 광주 1호 탈당

광주·전남 의원들 깊은 고민  
 새정치 탈당 러시 이어지나



일되지 않았다"며 "지역 민심과 깊은 소통은 물론 당내 선배 의원들과 많은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3선·광산 갑·사진)이 2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가운데 탈당한 현역은 박주선, 황주홍, 김동철 의원 등 3명이 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탈당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와 승리의 길을 외면하는 새정치연합은 이제 희망이 없다"며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전수신이어 다른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대해 "순차적으로(탈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1월중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장병완 의원(남구)은 지난 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회동을 갖고 야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최근 지역구 운영위원의 교체 등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탈당 등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광산 을)도 지난 주말 당원들과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갖고 야권 재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의원은 "당원들과 소통에 나선 결과, 행동(탈당)의 방향성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단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

임내현, 박해자 의원도 당원들로부터의 탈당 압력에 시달리며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모 의원은 "광주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상황과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하다"며 "주류 성향의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남은 광주와 운도차는 있지만 물고기가 터지면 독이 무너질 태세다.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호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탈당 등에 나서기 보다는 야권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일정 기간 민심을 지켜본 뒤, 내년 1월 중·하순에 정치적 결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과 주 의원이 움직인다면 이윤석, 김영록 의원은 물론 중립 성향을 보이는 이계호, 김승남 의원의 동참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연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면 전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러시로 새정치연합이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광주·전남에서 제2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015 광주일보문학상 안영옥 동화 '우리들의 할머니'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2015년 제11회 광주일보문학상(이하 광일문학상)에 동화작가 안영옥(57)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우리들의 할머니'.

<관련기사 17면>  
 광일문학상 심사를 맡은 채희운 소설가와 윤삼현 동화작가는 최근 광주일보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심사를 갖고 '우리들의 할머니'를 올해의 수상작으로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은 지방을 알고 있는 가운데 버려진 아이들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로 "부모 부재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진 동심을 조명해 현실문제를 짚어냈을 뿐 아니



라 문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다.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다람이와 할아버지'로 등단한 안 작가는 광주여성

문학상, 우송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일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2016년 1월 중 신춘문에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영호남 상생大路' 광주대구고속도로 내일 완전 개통... 미리 달려보니

왕복 4차선 시원한 속도감  
 추월도 안전하고 쉬워져  
 "이제 진짜 고속도로 같네"

"아 이제 진짜 고속도로 같네."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개통(22일)을 이틀 앞두고 20일 승용차를 이용해 미리 광주에서 대구까지 달려봤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광주요금소, 고서(담양)분기점을 거쳐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시원하게 뚫린 왕복 4차선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차창 너머로 담양 들녘과 건물들이 손잡음이 확실히 지나갔다.

속도 제한이 기존 시속 80km에서 도로 확장으로 100km까지 높아진데다 편도 1차선의 답답함이 사라지면서 운전자의 눈이 뜨는 속도감은 훨씬 빨라졌다.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눈에 띈 점은 크게 두 가지. 전 구간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것과 역주행하지 않고서 추월이 가능해졌다는 것. 성인 허리 높이의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가 쪽 이어진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내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뀌다 보니 추월도 안전하고 쉬워졌다. 운전자들은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운영될 당시 서행하는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역주행을 해야 했다. 충분한 시야 확보도 없이 추월하려고 역주행하면서 운전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

이번 확장 공사로 88올림픽 고속도로에서 사라진 것 중 하나는 수백m씩 줄지어 서 서행하던 차량 행렬. 지난 1984년 6월 개통 이후 88고속도로 언덕 구간에서는 짐

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 트럭을 선두에 두고 차량 수십 대가 거북이 운행하던 광경은 '88고속도로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차선이 2개로 늘면서 화물트럭 등 서행 차량은 2차선으로, 추월 차량은 1차선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이날 고속도로에선 서행 차량의 기다란 행렬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고속도로 곳곳이 직선화되면서 커브길 운전이 따른 부담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고서분기점에서 시작해 동대구까지 가는 동안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급커브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남원시~장수군 사이의 지리산 사치재 구간과 경남 함양군 해인사IC 부근, 그리고 경남 함양군 병곡면 부근 등 대표적인 급커브 구간 3곳을 포함해 곡선 구간 수십 군데가 직선화되면서 그 간 실재없이 운전대를 돌려야했던 수고는 사라졌다. 직선화된 구간에 새롭게 뚫린 터널(기존 4곳→28곳) 구간 일부에는 무지개를 비롯한 운전자의 주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구불구불했던 곡선 구간이 직선화되고 차선도 2개로 늘다보니 한국도로공사가 밝힌대로 영·호남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게 온 몸으로 느껴졌다.

이날 동광주~남대구까지 172km를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지리산 휴게소도 잠시 들렀지만 딱 2시간 걸렸다. 고속도로가 확장되기 전이라면 짧게 잡아도 3시간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교통 혁명' 수준이었다.

도로 사정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88고속도로에서의 새로운 위험은 '과속'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들었다. 실제 이날 광주~대구를 왕복하는 동안 제한속도(시속 100km)를 훌쩍 넘어서 150km 이상 질주하는 차량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마주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보강이 필요해 보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캐럴과 함께 실종된 연말 분위기 ▶6면  
 그림편지-정성준의 '베이징' ▶18면



'땡~' 뚫렸다 88올림픽 고속도로가 땡 뚫렸다. 20일 전북 남원시 아영면 지리산 IC에서 취재용 드론을 띄워 내려다 본 4차선 고속도로를 차량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다. 1984년 왕복 2차선으로 개통된 이 고속도로는 7년여간의 공사 끝에 최근 4차선으로 확장됐으며, 22일 오후 함양휴게소에서 개통식과 함께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거듭난다.

/남원 지리산I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70  
 SINCE 1946  
 70년의 힘, 움직이는 조선대학교

세상을 키우는 대학  
**조선대학교**  
 ★★★★★  
**국책사업 6관왕 달성**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조선대학교는 함께 나뉘 더 큰 세상을 만드는  
 "함께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국책사업 6관왕 달성(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유일)
- 국책사업비 총 2,000억 원 수주(최근 3년)
-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 전국 1위
- 재정건전성 우수대학(부채율 0%)
- 의대·치대·약대 등 16개 단과대학을 보유한 초대형 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 (가군) 일반학생   | 857명   |
| (가군) 지역인재전형 | 36명    |
| (나군) 일반학생   | 598명   |
| 계           | 1,491명 |

- 접수기간 : 2015.12.24.(목) ~ 12.30.(수)
- 인터넷접수 : www.chosun.ac.kr
- 입학문의 : 조선대학교 입학처 ☎ 062)230-666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